

Vol. **51**

2020년 5월
해사안전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윤희성 본부장
-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 E L . 051-797-4800
- F A X .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15만 명의 선원 교대 지연

IMO와 해운업계 대표들은 지난 4월 30일 IMO 가상 산업회의에서 안전한 해상무역을 위해 선원 교대가 극도로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a),b)}

- ▶ IMO와 국제해운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가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선원의 복지와 선원 교대 시급성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함
 -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가상 회의에는 임기택 IMO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IMO 실무자 및 IMO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비정부기구(NGO)¹⁾ 대표들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선에서 필수용품 무역을 유지하고 있는 선원의 노고에 공감하면서 선원, 항구 및 기타 관련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 NGO들은 현재 선원의 승선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하선하는 선원과 승선하는 선원 모두에게 외부 여행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선원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함
 - IMO 협약의 예외적 상황에 따른 증서 만료기한 3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IMO 사무국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표명함
 - IMO는 공동성명서 발표 및 회원국들의 요청사항 전파를 위해 다른 UN 산하기구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선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함
- ▶ 비정부기구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위한 작업계획을 발표함
 -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는 국제협약과 선급사항 준수를 위한 선박 검사관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검사관의 승선에 있어 개인 보호장비의 보급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함
 -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는 지난 2개월 동안(5월 4일 기준) 선원 교대가 중단되고 있으며 15만 명의 선원이 가능한 한 빨리 교대되어야 함을 강조함
 - 현재 ICS와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정부, 항만당국, 보건당국과 함께 '허브' 공항 및 항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원 교대와 선원의 이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1) BIMCO, CLIA, IACS, ICS, IAPH, IFSMA, INTERCARGO, INTERTANKO, INTERFERRY, IPTA, OCIMF, WSC

■ 비정부기구와 해운업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교대방안 모색 ^{b),c),d),e)}

- 비정부기구는 교대되지 못한 선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는 선박의 운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해상교통 요충지에 거점 공항 확보를 제안함

 - 전 세계 6만 5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120만 명의 선원 중 현재 교대가 필요한 선원 수는 15만 명이지만, 여행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승선기간 연장은 해기사들의 심적인 불안감을 키워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
 - ICS는 선원 교대가 지속적으로 불가할 경우 국가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 국 정부가 선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여행 제한을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함
 - 또한, 지난 4월 15일 국제항공운송협회와 공동으로 원활한 선원 교대를 위해 필리핀, 인도, 중국, 서유럽, 동유럽 등의 공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거점 공항으로서의 정비를 요청함
- 해운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와 연합 등과 같은 결정을 내려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선주협회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선원의 승선으로 발생하는 비인도적 위협과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항공사 KLM과 함께 선원을 위한 비행기 배치를 협의함
 - 네덜란드의 해운회사들은 선원을 위한 특별 운항편과 전용 비행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선원을 하선하여 자택까지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한편 지난 3월 선원에서 확진자가 발생²⁾한 머스크는 4월 14일까지 선원 교대를 일시정지하기로 하였지만,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4주 더 연장한 5월 12일까지 선원 교대 금지기간을 연장함
 - 머스크는 선원들의 체류나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또는 규정상의 문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및 소모품 구매 자금 지원과 같은 복지 개선에 노력함

■ 단일 국가 차원보다는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선원의 안전한 귀국 방안 마련이 필요

- 선원 교대와 더불어 특히 국내 항구를 입항하지 않는 불귀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한 이동과 본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선원용 특수 공항 및 항구와 같은 경로 마련이 필요함

2) 'Gjertrud Maer'나 호에서 7명의 선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중국 Ningbo 저우산항에 정박해 의료기관 진단한 결과, 1명이 확진, 4명이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15명의 선원이 체류됨

- 각 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원의 상륙과 여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원 교대가 어려워지면서 선원 인권과 복지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음
- 선원의 안전은 선박의 운항과 화물의 적시성에 직결되므로 선원 교대의 지연은 개인의 심신 피로와 같은 1차적 피해에서 해양사고와 같은 2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세계 각 국 정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종식 시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선원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
- 국제적 차원의 선원 교대 및 이동 경로 확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엄격한 방역 체계를 갖춘 특수 공항 및 항구를 지정하고 비상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김보람 연구원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zzz3678@kmi.re.kr / 051-797-4640)

참고
자료

- a)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검색일: 2020.05.06.)
- b) <https://www.swzmaritime.nl/news/2020/04/29/shipowners-fear-dangerous-conditions-on-board/> (검색일: 2020.05.06.)
- c) <https://www.swzmaritime.nl/news/2020/05/04/150000-seafarers-trapped-at-sea-due-to-covid-19/> (검색일: 2020.05.06.)
- d)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02> (검색일: 2020.05.06.)
- e)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12> (검색일: 2020.05.06.)